2014년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발표

현장 모니터링 담당자 : 정현희, 허남혁, 송동흠

충남발전연구원
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

I. 모니터링 개요

가. 일시 : 4월 10일 (아산, 당진)
4월 11일 (천안)
4월 17일 (공주, 청양)
4월 18일 (논산, 서천)

나. 모니터링 대상

사업별 지원 대상	개소 수	비고
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	2	당진시, 아산시
추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	5	천안시, 공주시, 청양군, 논산시, 서천군
총 계	7	

다. 모니터링 내용

○ 운영현황 및 추진단계 점검을 통해,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안전·안심 학교급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–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격, 운영형황 및 문제점 파악, 조직운영에서 전문성, 식재료 공급에서 지역여건의 수렴 정도·공급내용의 실제적 내용, 생산자·영양교사·학부모 등의 만족도, 안전·안심 학교급식 증진 관련 농약잔류·방사능·세균 검사 등을 조사함.

II. 모니터링 결과

가. 총괄적 파악

– 7개 시·군 모두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식재료 공급 또는 시설 위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임.

· 3농혁신 사업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따른 결과라 할 것임.

– 청양군을 제외한 6개 시·군에서는 지역농협 또는 지역농협 공동출자의 조합공동법인이 사업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음.

· 청양군은 청양군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함.

– 사업 추진의 지역 편차가 크며, 신규 추진 다수 지역에서 진척도가 크게 낮음.

· 당진시와 아산시는 기 운영조직이며, 외형적으로 안정화된 운영 모습을 보임.

· 신규 추진지역 가운데는 청양군만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, 천안시, 공주시, 논산시, 서천군 모두 출발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.

– 학교급식지원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안전·안심과 지역 연계 강화 측면

· 당진, 아산, 청양 등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교육,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·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–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속가능성과 향후 지원방향 측면

· 지역별 조건은 다르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며, 이와 관련한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.

· 광역 차원에서의 총괄 조정기능 확보, 센터 운영 매뉴얼 등을 희망하고 있음: 광역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.

나.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실제

<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>

– 기본 현황

·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358번길 13에 위치,
· 부지 2,980㎡, 건축면적 1,749.34㎡
· 설비비로 34억 3천만 원 비용 소요, 땅값 조성비 포함 경우 55억 원 규모
· 소분포장, 전처리 시설, 가공실, 저온저장, 상온창고, 위생·실험실 등 구비
· 아산 원예농업협동조합 중심 운영

– 학교급식 식재료 내용·공급범위와 규모

· 농산물과 축산물 (초·중·고교 농산물과 축산물 외 사립유치원 쌀배송)
· 다만 축산물은 수발주 등 상류업무 만 담당하며, 구매 및 배송은 축산물연합회에서 맡고 있음.
· 농산물 부분에서 지역농산물 비중은 50~70%로 해당하며, 이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유기농쌀 포함 40% 이상에 이른다고 함.
· 쌀은 초·중은 유기농쌀, 고등학교는 무농약쌀로 공급함.
· 가공식품·수산물 등은 기존 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참여하지 않음.
· 2013년 12월 기준 농산물·김치·쌀 1,838톤, 8,173백만원을 공급함.
· 2013년은 친환경농산물 36%, 쌀 27%, 일반농산물 22%, 김치 15%로 구분됨.

– 식재료 조달 방법

· 지역농산물은 직거래가 중심이며, 그 외는 대전물류센터 의존이 큼.

– 학교급식과 지역의 관련성

· 중소농 중심의 친환경농가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, 대농 관여는 미미함.
· 2013년 12월 기준, 관내 농산물 31종 공급 중이며, 당해 103톤의 876백만원의 공급 실적을 보임.
· 아산시생산자연합회 적극 참여로 40개 품목(2014년 품목수 증가) 계약재배를

통한 생산·공급을 행하고 있으며, 이에 연합회에 수수료 2%를 지급함.
- 생산자의 참여 의욕이 높아져 송악·영인·인주·음봉·선도·푸른들·아산시생산자연합 등에서 참여가 활발함.
- 지역농산물 식재료의 일반 흐름은 생산자 → 생산자연합회 → 농협 → 센터 → 학교임.
- 토마토 등의 과잉물량 발생은 연합사업단에서 친환경중심으로 우선 구매함.
- 학교급식 참여농가와 직매장 출하농가가 30% 정도 겹친다고 함.
- 학교단위에서 지역농산물 이해 증진으로 다소 높은 가격도 수용하는 분위기가 생겨남.

– 학교급식에 관한 지역사회 만족도
- 영양교사 대상 상·하반기 1회씩 만족도 조사, 70%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함.
- 영양교사의 만족은 행정업무 간소화, 불만은 클레임 대응 부실이 주라고 함.
- 학부모는 운영위원 중심 설문에서, 급식질이 좋아졌다는 반응을 나타냄.
- 농가는 70% 이상이 연중 동일가격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수취가격 등에 만족으로 표기하며, 적극 참여하는 모습임.

– 가격결정 방법
- 가격은 지역농산물은 연 1회, 지역 외는 매달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.
- 시장가격조사위원회서 관내 마트 판매단가와 비교해서 1차 결정하고,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임.

–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교육
-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인력은 농협중앙회 주최, 학교급식 교육에 참여하며, HACCP 적응을 위한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음.
- 학생 대상 텃밭사업, 조리교육, 현장 체험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음.
- 영양교사 대상, 상·하반기 연 2회 교육을 계획하며, 상반기는 시지원 계획, 센터운영계획, 가격·품질문제가 중심으로 운영함.
- 생산자 교육은 2014년의 경우 분기별 1회 추진을 계획 중이며, 2013년은 현장교육 포함 10회를 실시함.

– 안전·안심 학교급식 운영
·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에 적극 힘쓰고 있음.
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, 월 5회 잔류농약 검사, 구근류와 채소류의 유해세균 조사 등을 행함.

– 향후 운영개선을 위한 요구
· 식자재 공급업체와 관계 개선 및 조정을 위한 제도가 요구됨.
· 농협중심의 운영에서 생산·유통·공급 부분의 장점을 적극 살리고, 정책·교육운영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.
·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연계강화와 학교급식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.
· 2013년 수지분석에서 28,895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, 향후 지속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됨.

<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>

– 기본 현황
· 당진시 시곡동 산267번지에 위치,
· 부지 31,298㎡, 건축면적 6,702㎡(지상 2층) [학교급식 부분은 990㎡]
· 사업비 182억 소요 (안행부 소도읍 가꾸기 지원)
· 농산물산지유통시설 + 학교급식지원시설로 운영
· 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담당 (관내 12개 농협+축협+낙협 참여)
· 채소·육류 전처리, 패킹, 저온저장, 냉동까지 구비, 실제는 세척·탈피·포장까지 활용

–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실제
· 발주직원, 가공식품 패킹, 전처리 소분, 수발주 직원, 클레임 직원, 배송직원 등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.
· 센터 종사원 대상으로 위생교육 월 1회, 품질관리기준교육 연 4회, 서비스 교

육 연 2회를 실시함.

– 학교급식 식재료 내용·공급범위와 규모
· 학교급식 식재료 전품목을 담당함.
· 농산물은 쌀 포함 관내 60%, 외부 40%
· 친환경쌀, 무농약은 100% 관내 것, 원예농산물은 친환경 비중이 50%, 관내 농산물 중 친환경 비중은 30% (양배추, 감자, 양파, 고추 등이 친환경임)
· 축산물은 관내 90%(관내 비중은 소 90%, 돼지 100%, 닭은 지역 도계장이 부도로 천안서 가져옴.)
· 공산품은 오뚜기, 청정원, CJ, 풀무원 등 대기업과 직거래가 있으며, 이는 총 가공품의 30%에 해당하며, 5~10% 저렴한 가격에 들어옴.
· 공공기관, 요양병원, 성모병원, 돌봄교실, 유치원 간식류 등으로 공급범위가 넓어지고 있음.
· 서울·경기 등으로의 공급에도 힘쓰고 있음.

– 식재료 조달·공급 방법
· 기존 납품업체에서 배송업무로 센터업무에 함께하고 있음.
· 기존 납품업체는 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해 다른 곳에 공급하는 일도 함.
· 아산학교급식지원센터에 감자·양파를 공급하며, 아산에서 배를 받고 있음.

– 학교급식과 지역의 관련성
·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는 분기별 1회, 가격결정협의회 월 1회 개최로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및 지역과 소통에 힘씀.
· 가격결정협의회는 영양사 3명, 교육청 1명, 시청 1명, 법인 1명, 축협 1명 참여
· 지역농산물 적극 활용 지원을 위한 영양교사 대상 지역농산물 정보 메일발송
· 지역 소농가의 학교급식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(APC전체에서 100농가에서 2,000농가로 늘어남).
· 계약재배 농가는 100농가이며, 이들로부터 전체 필요 식재료의 60%를 충당하고 있음. (쌀 30농가 별도, 딸기·사과는 법인으로부터 주문함.)
·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참여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로컬푸드 차원의 이

해도 증진되고 있음.

- 원예농산물 600억 원 중 30억 원이 학교로 공급되고 있음.
-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계기로 관내 음식점과 매장서 지역 축산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.

– 학교급식에 관한 지역사회 만족도

- 각 세부 계층 대상 조사는 없으며, 운영위에서 선생님 포함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으며, 긍정적 답변을 구하고 있다고 함.
-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고, 아이들 가공식품 소비도 조금씩 내려감.

– 가격결정 방법

- 농산물은 주 단위 결정: 매주 1회 농협에서 발표, 영양교사 서면검토함.
- 가공식품 가격은 3개월 1회, 홍보가 기준의 92%로 결정
- 축산물·수산물은 1개월 단위 결정
- 농가에는 연중 동일가격을 지급하며, 전년도 가격, 시장흐름을 참고로 출하보름 전에 결정함.
- 농가수취가는 시장가격보다 20% 높게 결정되며, 지역농산물은 다소 비싸더라도 적극 이용하자고 학교설득에 힘쓰고 있음.
- 농가에서도 연중 고정가격 등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.

–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교육

- 영양교사·조리사 친환경농장 초청 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있음.
- 학생들 대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– 안전·안심 학교급식 운영

- 농산물에 대해 시약을 활용한 농약잔류 자체 간이검사를 시행하고 있음.
-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200건 이상 조사하며, 무농약 농산물서 잔류농약이 검출, 출하금지한 사례 있음.
- 축산물은 DNA검사, 유전자 검사로 한우여부를 확인하고 있음.
-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수협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다는 정보를 서류로 확인하

였고, 구체적 사항에 대한 요구는 없음.

– 향후 운영개선을 위한 요구
· 작은 학교와 큰 학교를 동일 물류비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, 이에 일정 보조가 요구됨.
· 경영컨설팅, 직무분석, 재무분석 등이 행해질 필요가 있음.
·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, 이를 통한 운영내실화에 힘쓰고 있음.

<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>

– 진척사항
· 2013년말 조공법인 설립
· 학교급식부와 원예사업부를 둠
· 학교급식부는 단장 1명(건축, 학교협의 담당), 직원 2명(수발주 1명, 작부체계 1명), 원예사업부는 직원 2명을 둠.
· 현재 실시설계 공모완료 후 계약을 체결, 올 6~7월중 착공, 2015년 3월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.

– 준비사항
· 2014년 하반기 곡물류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일반농산물은 현재 지역현황을 파악 중에 있음.
·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진행중인 천안친환경연합회 위탁 현물공급센터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공급을 위해 논의·협의 중임.
· 지역범위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결성을 구상 중에 있음.

– 향후 운영개선을 위한 요구
· 충남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.

<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>

– 진척사항

· 2015년 3월 운영 예정으로 추진함.
· 학교급식 취급범위, 운영방안 시설설비 논의, 농민단체와의 의견, 기존 업체와의 관계 설정 등의 논의가 진행 중임.
· 육가공, 수산, 농산, 공산 등 학교급식 식재료 전체를 다룰 수 있는 HACCP 시설을 갖춘 시설 구상으로 NH개발과 계약을 준비 중에 있음.
· 30%에 이르는 물류비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경영부담 등 운영에 관한 지역농협 간 논의가 한창이며, 운영적자 우려로 소극적 반응을 보임.
· 지역농협 간 그리고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합의점 마련 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큼.
· 지역친환경연합회에서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소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상호 구체적 협의에 이르지는 못함.
· 현 23개의 업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후 참여방안을 문의하고 있어,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.
· 조공법인 참여 농협은 운영내실화를 고려할 때 농협이 전체 책임운영이 맞다는 이해가 일반적이며, 농산물만 담당할 때 적자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큼.

– 시설 및 운영현황

· 지역 11개 농협 공동출자의 조공법인 중심 운영이며, 센터부지는 우송농협 DSC시설에 배치코자 하며, 실제 운영은 우성농협 주관이 될 것임.
· 우성농협은 하나로마트를 활용 로컬푸드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도 준비 중임.

– 향후 운영개선을 위한 요구

· 공주 자체 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에는 적자가 우려되며, 청양·부여 포함 공동센터로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함.
· 기존업체와의 관계 설정, 인건비·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등 운영안정화를 위한 컨설팅이 필요함을 제기함.
· 농산물만으로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해 속에 단체급식, 꾸러미 사업 등까지

영역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음.

<청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>

– 기본현황

- 청양군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서 현물급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
- 저온창고, 진공포장, 작업장, 사무실 등 227㎡ 건축면적
- 행정이 직영하려다 2013년 농민단체와 논의에서 시설최소화 및 운영위탁으로 결정하고, 최종적으로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담당하게 됨.

– 학교급식 식재료 내용·공급범위와 규모

- 현물급식센터 방식으로 운영 중임.
- 계약재배, 납품업체 선정 공급 등을 포함, 식재료 전품목을 대상, 단계적 확대를 계획함.
- 3월까지: 쌀포함 농산물 17종, 고춧가루, 들기름, 참기름, 두부 등 청양산 농산물 원료로 가능한 가공품까지 공급함.
- 농산물과 가공품 21개 품목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, 학교급식 예산의 15~16% 범위로, 매일 배송함.
- 4월부터 : 6개 학교에 친환경축산물, 소·돼지·닭 공급 추가함.
- 축산물은 기존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데, 소는 청양산 한우(일반, 무항생제), 돼지는 국내산으로 대전충남 양돈조합, 목우촌, 홍성육가공 등에서 들여 옴. 무항생제 돼지는 전남에서 조달하며, 닭은 천안에서 무항생제가 들어옴.
- 당초 학교급식지원센터 논의는 가공을 제외하고자 했으나, 과소지역 4개면이 입찰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한 교육청 문제제기로 전 품목 공급을 결정함.

– 식재료 배송 방법

- 업체가 센터까지 들여오고, 다시 센터가 학교로 배송하는 방식을 택함.
- 쌀은 상류만 맡고 있고, 화성농협이 전량 수매·배송함.

– 학교급식과 지역의 관련성
· 식재료 공급업체 간담회, 영양교사 교육 및 프로그램 설명회, 교장·행정실장 설명회 등으로 지역사회 소통을 넓혀가고 있음.

– 가격결정 방법
· 가격결정소위원회가 결정에 참여함.
· 현재 쌀 2%, 친환경 12%, 가공품 15%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.

– 안전·안심 학교급식 운영
· 잔류농약은 전문기관 위탁이며, 자체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음.

– 향후 운영개선을 위한 계획 및 요구
· 상반기 현물급식센터 시범운영 후 충남도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(운영에 필요한 최소 시설 마련 계획)
· 시설 논의에 그치지 말고, 학교급식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썼으면 함.
· 지역 전통가공품 진입장벽이 낮아지길 희망함.
· 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.

<논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>

· 부지 선정을 논의 중이며, 시설 설계 등의 구체적 진행에 이르지는 못함.
· 지역농협에서 학교급식이 적자가 크다는 이해를 갖고 있어 진척이 더딤.
· 지역농협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, 논산계룡농협에서 3명만 파견, 원예사업 쪽에만 배치해 둔 상황임.
· 학교급식 전반과 기존 급식업체에 대한 파악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.

<서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>

- 설비설계는 마쳤으나, 당초 설립 예정인 부지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으로 다시 부지를 찾고 있는 단계임.
- 새로운 부지 선정에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개별 조합의 수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임.
- 그간 협조 의사를 보이던 기존 업자들과의 관계가 사업진척 미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조정이 필요하게 됨.
- 지역농협 등은 기존 업자와의 관계 규명 후에 사업을 진전시키자는 의견임.
- 친환경생산농가와의 사업설명회도 8월로 잡혔으나, 일정 변경으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.
- 다만 지역 친환경농가 참여 의사는 높다고 함.